

2022년 09월

경남마을교육공동체

우리들의 행복한 마을이야기

제 25 호

사진<창원 봉림동 마을기후캠프 숲밧줄놀이>

[발행]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혁신과 마을교육공동체 담당

[편집] 성정은 / 문의 : 055.268.1523

1. 행복교육지구 소식 모아모아 2. 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하는 학교와 마을교육공동체 3. 한들초 신종규 교장, 지역의 역사이야기를 담은 동화책 출간

TOP NEWS

학교와 마을을 품은, 김해 무계행복마을학교 개관 행사



무계행복마을학교 개관식

김해교육지원청은 2018년 김해시 도시재생센터의 국토부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마을학교 설립에 관한 협의회를 시작으로 2021년 무계 메모리얼 플랫폼과 행복마을학교 위·수탁 협약 체결을 거쳐, 올해 6월에 준공허가를 받고 2022년 8월 18일 개관하였다. 이날 개관식은 경상남도 교육청 및 김해시 관계자, 김해교육지원청 및 김해행복교육지원센터 실무자, 학생, 학부모, 마을교사 등을 초대하여 진행되었다.

무계행복마을학교는 김해교육청과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한 미래형 배움터 구축과 마을교육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유시 무계동에 터를 잡은 이 시설은 무계자치배움터, 무계공작실, 무계제빵실, 무계강의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6월부터 학생중심마을학교수업과 지역민 연수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이미 26개의 강좌에 260여 명의 학생과 지역민들이 참여하였고, 9월부터 시작되는 28개의 강좌는 모두 마감된 상태이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무계행복마을학교가 학생들에게는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 지역주민들에게는 배움과 주민자치의 공간으로 활용되어 김해교육 발전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경남교육청, 2022. 사회적경제교육 학생캠프 실시



2022. 사회적경제교육 학생캠프

경상남도교육청은 2022년 8월 4일(목)부터 6일(토)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이순신리더십국제센터에서 학생 21명을 대상으로 2022. 사회적경제교육 학생캠프를 실시하였다. 매년 학교혁신과에서는 사회적경제교육 활성화의 일환으로 학교협동조합*운영학교 학생조합원 대상으로 체인지메이커 교육,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등을 주제로 사회적경제교육 캠프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캠프에서는 사회적경제 미션활동으로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인식하고 창업박람회를 통해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특히, 환경의 지속가능성,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창출 등에 초점을 맞춘 사업계획서를 기획하여 발표하는 창업박람회를 통해 사람들 먼저 생각하는 사회적경제의 필요성을 깨닫는 기회를 가졌다.

범어고 김00학생은 “모둠원과 내가 꿈꾸는 사회를 생각해보고 창업 아이템을 구상해보는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라며 “우리 아이디어에 대한 컨설팅을 받아 수정하고 완성해보는 경험이 새로웠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학교협동조합 : 학생·교직원·학부모·지역민이 자발적으로 공익적 사업(학교가게, 방과후·돌봄교실, 학생문구, 직업교육 등)을 운영하여 교육자치 및 교육 복지를 만들어가는 사회적경제 교육공동체 (경남 총 10개교 설립운영중, 2022년 1월 기준)

*상주중, 함성중, 물금고, 범어고, 보광고, 사천여고, 세종고, 태봉고, 양산희망학교, 교방초

경남행복마을학교, 청소년 사공프로젝트 발표회를 열다



경남행복마을학교는 지난 7월16일에 2022학년도 청소년 ‘사공(四公) 프로젝트’ 1기의 활동 과정과 결과를 마을 안에서 공유하고 확산하고자 성장·나눔 발표회를 열었다. ‘사공 프로젝트’는 ‘마을, 환경, 학교, 또래’라는 4가지 영역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다. 올해 청소년 사공 프로젝트 1기는 ‘역사, 기후, 요리, 마을 방송’ 등 4가지 주제로 1학기 14주 동안 활동했다. 역사팀에서는 국립3·15민주묘지, 북면 역사 현장 탐방 등 지역 역사를 알아보고 정리한 소책자를 전시했으며, 기후팀에서는 환경을 위해 중고 물품을 교환하고 판매하는 장터인 ‘불편한 기후상점’을 운영했다. 요리팀에서는 직접 만든 과일청을 이용한 음료와 지역민 제빵 동아리에서 만든 쿠키를 판매했다. 수익금은 모두 마을에 기부할 예정이다. 마을방송국에서는 경남행복마을학교 청소년 마을방송국을 개설하고 제작한 사공 프로젝트 홍보 영상을 상영했다. 특히 전문적인 역량과 열정을 가진 길잡이 마을교사들은 청소년이 마을과 관계를 맺고 보다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왔다.

사천행복교육지구, 마을교육공동체 워크숍 개최



사천교육지원청은 8월 11일(목) ‘학교와 마을이 이어가는 행복한 미래 교육’이라는 주제로 행복(맞이)학교 교원, 마을학교 운영자, 마을교사, 행복교육지구 운영위원 등 23명의 마을교육공동체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광주교육청 산하 마을교육공동체 및 혁신학교를 방문하여 배움과

성장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3년여 기간 동안의 사천행복 교육지구의 마을교육공동체 현재를 돌아보고 향후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일정으로서 광주광역시 평촌마을교육공동체, 광주효동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북구통합도서관 등을 탐방, 관계자와의 대담 및 소통의 기회가 되었다.

특히, 평촌마을은 숲놀이터, 생태체험, 무돌길 쉼터 등과 같이 마을과 학교를 이어주는 사례는 사천의 생태마을교육과정, 놀이중심 마을학교와 닮아 있고, 교육공동체의 진솔한 소통을 기반으로 소확행 교육을 즐기는 광주효동초등학교는 우리교육지원청 행복(맞이)학교의 소통방식과 맥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고 설계하는 알찬 시간이었다.

밀양행복마을학교, 『골(Goal)때리는 수업』 운영



밀양교육지원청은 여름방학을 맞아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8월 8일(월)부터 8월 12일(금)까지 5일에 걸쳐 「골(Goal) 때리는 수업」여름방학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방학 기간 동안 학생들의 심리·정서, 사회성, 신체 건강 등의 교육적 결손을 우려하여 밀양행복마을학교는 이를 극복하고자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으며 신청이 조기 마감되는 등 관내 학생 및 학부모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골(Goal)때리는 수업」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흥미와 요구를 반영하여 △저글링, △사격, △스포츠스태킹, △양궁, △킨볼, △골프, △풋살, △빅발리볼, △플라잉디스크, △배드민턴 등 총 10종목으로 운영하여 관내 체육 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수업을 담당하였다.

밀양중 2학년 지00학생은 “어머니의 권유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고, 오늘은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사격을 배우게 되었는데 집중해서 쏘다 보니 시간도 금방 지나가고 스트레스가 풀렸다. 또 골프도 처음 해보는데 기대가 된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협력, 존중, 배려 등의 인성 함양 및 체력 증진에 긍정적인 효과가 되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미래교육지구 회복교육 마을교사단, 서클수업 진행



의령교육지원청은 8월 26일(금), 9월 2일(금) 양일간 마을교육과정 중점 운영학교에 선정된 의령여자고등학교의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회복교육 마을교사와 함께하는 '관계형성 및 안전한 학급공동체 구축'이라는 주제로 서클 수업을 진행하였다.



설렘과 긴장을 동시에 안고 교실에 들어간 회복교육 마을교사는 동그랗게 앉은 학생들과 반갑게 환영 인사를 나누고 준비한 일정을 아이들에게 소개한 후 서로가 경청하며 존중하는 마음가짐으로 100분 간 서클 수업을 진행하였다.



서클수업이 끝난 후 가진 수업평가회 시간

그동안 학업으로 지쳐있던 학생들은 "서클수업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말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할 수 있어서 좋았다.", "‘몸으로 말하기’는 평소에 할 수 없는 게임인데 기억에 남는 활동이었다. 친구들과 함께 하니 경계심과 경쟁심이 사라지고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일시적으로 사라졌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청소년 자치활동 우주여행 3년 만에 선진지 견학



양산행복마을학교는 지난 8월 20일~22일 2박 3일간 21개 학교 60여명의 학생들과 함께 서울·경기 지역으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다. 참여한 학생들은 우주여행*프로젝트 참가자로 지난 학기 15주간 매주 토요일 행복마을학교에 모여 프로젝트 활동을 해왔다.

*** 우주여행이란?** '우리가 직접 만들고 주인공이 되는 여기는 양산행복마을학교'의 줄임말로 양산행복마을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 자치활동을 의미한다. 올해 하반기 7기를 맞이하여 댄스, 밴드, 자립여행, 자립카페, 체인지메이커의 5개 분야로 10주간 프로젝트를 펼칠 예정이다.

첫째 날 에버랜드 자유투어, 둘째 날 모뎀별 자유투어, 셋째 날 하자센터(서울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 에듀투어로 구성되었으며 7~8명을 한 모뎀으로 전체 7개 모뎀이 '서울의 역사와 문화체험'이라는 주제로 청와대, 경복궁, 북촌 한옥마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낙산공원 등 다양한 장소를 탐방했다.

이번 견학은 학생들이 모뎀별로 의견을 조율하고 주도적으로 기획한 점과 코로나 확산 이후 3년 만에 처음 이루어진 여행이라 더 의미가 깊다.



참여한 한 학생은 "서울을 팀원들과 주도적으로 여행했던 것이 가장 재미있고 유익했다.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과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으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해 깨달았다"라고 하였다.

지역의 역사이야기를 동화책으로 담아낸다



‘호리병의 비밀’의 저자 신종규 교장

2016년 개교한 창원한들초등학교는 ‘학교에서는 행복학교, 학교밖에서는 마을학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마을교육공동체가 함께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이끌고 있는 학교이다.

창원한들초등학교 신종규 교장은 2021년, 지역과 학교를 연결하는 공간혁신사업에 한들초가 선정되면서 아이들의 요구와 마을 이야기가 있는 창작동화책을 함께 써 보기로 하였다. 오랫동안 교단에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마을의 이야기와 돌봄 등, 마을과 공동체에 깃든 교육이 얼마나 아이들을 성장시키는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신종규 교장은 “한들초의 역사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우리 지역의 봉림사와 관련된 오래된 역사 이야기, 넓은 공원과 산으로 둘러 쌓인 독특한 자연환경, 학부모와 지역민들의 공동체가 살아 있는 곳이다. 그래서 학교의 학생들도 지역과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길 바랐다.

전교생이 응모하여 이야기를 모으고 다듬은 결과, 딱 1년 만에 ‘호리병의 비밀’ 동화책이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학생들이 응모한 그림들을 학교 타일벽화로 전시

‘호리병의 비밀’은 봉림이라는 주인공이 호리병의 마법으로 낯선 땅에 떨어져 특별한 모험을 펼쳐내는 이야기이다. 마을에 내려오는 전설을 바탕으로 두고 아이들이 현실에서 겪는 이야기를 보태고, 여러가지 상상력을 버무려서 완성되었다.

익살스런 표정과 그림체로 봉림이의 표정과 마을의 배경을 따스하게 표현해낸 그림을 그린 박경애 작가 역시 현직 교사이다.

박경애 교사는 “한들초에서 근무하며 아이들에게 가르친 마을 교육과정 이 삽화 작업에 큰 도움이 되었다. 씩씩한 봉림이와 개성적인 아이들



북토크 형식으로 진행된 책나눔 행사

캐릭터를 만들어내고, 이야기 흐름에 따라 인물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재미도 있었다. 무엇보다 봉림이의 표정을 통해 점차 밝아지는 내면 변화를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책이 출간되어 7월13일, 학교 강당에서 전교생과 함께 기쁨의 책 나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과 함께 1년 동안 동화책이 탄생하기 까지 과정들과 시간들을 함께 나누며 우리 학교가 있는 우리 마을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배울 수 있었던 의미있는 시간들이었다.

또한 8월에는 ‘한국어린이 출판협의회 이달의 추천도서’에 당당히 선정되기도 하였다.



마을이야기책을 마을해설사들에게도 전달

신종규 교장은 “우리 어린이들은 이미 자신만이 가진 이야기가 있다. 그것을 끄집어 내어 인문학적인 창작의 경험을 해볼 수 있었다. 그 과정을 통하여 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림도 그린다. 함께 참여해 준 어린이들과 노력해 주신 우리 선생님과 주변 학부모님께 고마운 인사를 전하고 싶다. 또 기회가 된다면 함께 2편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전국의 많은 어린이들이 이 책을 읽고 긍지와 자부심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 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쁨을 전하였다.